

-(으)ㄴ을 금치 못하다

~을 금할 수 없다

억누를 수 없을 만큼 강한 감정을 공식적인 논평의 격식으로 표현합니다. 금하다는 금지하다, 억제하다라는 뜻이며,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감정 명사, 받침 있음	을 금치 못하다	놀라움을 금치 못하다
감정 명사, 받침 없음	를 금치 못하다	분노를 금치 못하다
절 뒤	-(으)ㄴ을 금치 못하다	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다
ㄹ로 끝남	ㄹ + ㅁ	만들다 → 만듦
축약	금치 = 금하지	금하지 못하다
격식	공식 성명	애도, 항의

■ 언제 쓰나요

명사는 보통 감정을 나타내는 기성 단어입니다: 놀라움, 안타까움, 유감, 감사, 슬픔, 분노. 절과 함께 쓸 때는 먼저 -(으)ㄴ으로 명사화하며, ㄹ은 그대로 유지합니다: 만듦.

이 표현의 격식은 공식 성명의 격식입니다. 애도, 항의, 유감 표명 등에 씁니다: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합니다.

긍정과 부정 양쪽 모두 가능합니다. 감사를 금치 못하다는 감사, 분노를 금치 못하다는 분노입니다. 고정된 것은 감정이 강하고 격식 있게 표명된다는 점입니다.

금치는 금하지의 축약형이며, 이 표현은 거의 항상 부정형으로 씁니다. 이 의미로 금하다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.

■ 예문

-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합니다.
- 그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.
- 유족들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.
-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금치 못합니다.
- 되풀이되는 사고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.
- 일일이 손수 만듦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.

■ 비교

-아/어 마지않다

둘 다 격식 있는 강조 표현입니다. 마지않다는 감정 동사에 붙고, 금치 못하다는 감정을 명사로 받습니다.

감사해 마지않습니다. / 감사를 금치 못합니다.

-기 짝이 없다

짝이 없다는 형용사를, 그것도 부정적인 형용사만 강조합니다. 금치 못하다는 명사를 받으며 긍정·부정 모두에 씁니다.

안타깝기 짝이 없다. (형용사, 부정적 의미만) / 감사를 금치 못한다. (명사, 긍정·부정 모두)

-(으)ㄴ/는 바이다

둘 다 격식 있는 성명에 씁니다. 바이다는 행위를 격식화하고, 금치 못하다는 감정을 표명합니다.

유감을 표하는 바이입니다. (이에 표명함) / 유감을 금치 못합니다. (억누를 수 없음)

■ 주의

✗ 일일이 손수 만듦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.

○ 일일이 손수 만듦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.

ㄹ 어간은 ㄹ을 유지하고 ㅁ을 더해 만듦이 아니라 만듦이 됩니다.

✗ 배고픔을 금치 못했다.

○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.

명사는 신체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나타내야 합니다. 배고픔은 이런 격식으로 표명하는 대상이 아닙니다.

✗ 아,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어.

○ 아, 진짜 깜짝 놀랐어.

이 표현은 공식 성명에 속합니다. 친구 사이에서 쓰면 보도자료를 읽는 것처럼 들립니다.